



취임사



존경하는 전국의 LPG충전사업자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LP가스공업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사람에게 LPG업계의 진흥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국의 LPG충전사업자를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임 회장님께서서는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 동안 업계의 난제를 해결하시는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역판매제로 충전업의 입지를 축소하려 했던 백승홍의원의 LPG법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대처하셨고, 제2차에너지세 제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며, 경유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불허

함으로써 경유 택시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우리업계의 사활이 걸린 굵직굵직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LPG산업이 유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저 역시 전임 회장님의 훌륭한 업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남석우 회장님의 빈자리가 느껴지거나 않을까 이 직책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회원여러분!

지금 우리LPG업계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프로판 쪽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프로판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밸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검사비 인상이 국제유가상승과 맞물려 프로판 가격경쟁력이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가스공사가 배관이 아닌 탱크로리에 의한 LNG공급을 확대해가고 있어 우리 LPG업계가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현재 프로판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 LPG+DME혼합연료 보급을 위한 연구, 자동차사의 LPG신차출시, 경승용차의 LPG화, 저공해LPLi차 기술개발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과제들이 최선의 방향에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부탄쪽 역시

지난 7월12일 “경유택시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건교부 지침이 각 지자체에 전달되면서 경유택시 문제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임은 물론 LPG신차생산 유도 등 저변확대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현재 프로판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 LPG+DME혼합연료 보급을 위한 연구, 자동차사의 LPG신차출시, 경승용차의 LPG화, 저공해LPLi차 기술개발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과제들이 최선의 방향에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대내외적으로 우리협회의 권위와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회 및 지방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모든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회의 역할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나, LPG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협회가 제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도록 협회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요청 드립니다.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있어야만 우리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달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확실히 얻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LPG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9.
회장 유수련